

Governance Opinion

< 한눈 파는 2세, 천재 신동 3세? >

1

984년에 설립된 한국카본은 낚시대의 재료인 Carbon Sheet를 시작으로 LNG 가스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인 단열 판넬과 바닥장식재의 필수 재료인 Glass Paper 등을 생산하는 소재 전문 기업이다.

한국카본의 주력인 카본 프리프레그는 고강도, 고탄성을 특징으로 그 용도가 무한하며, 현재는 낚시대, 골프, 스키 등 주로 레저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항공 우주 산업을 비롯해 전자, 건축, 수송 사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될 전망이다. 한국카본은 2020년 국내 TOP1 복합소재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글로벌 복합 소재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이념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한국카본의 조용준 전 회장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지만 독학으로 국내 최초 유리 섬유를 만들고 보잉사 등의 항공기 날개, 미사일 부품, 복합재료 컨테이너, 한국형 풍력발전 시스템 등 각종 첨단 제품을 만들며 지금의 한국카본 그룹을 일구었다.

조용준 전 회장으로부터 출발한 한국카본은 한국화이버, 한국신소재 등을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나 지난 2011년 조용준 전 회장과 조문수 현 대표이사 간에 부자지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한 차례 흥역을 치른 후 지금은 한국카본과 한국신소재, 그리고 에이치씨네트웍스를 조문수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것으로 계열분리 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버지와의 경영권 분쟁 끝에 한국카본을 차지한 조문수 대표이사는 이제 다시 아버지가 되어 아들에게 한국카본을 승계하기 위한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카본의 3세 경영 준비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카본의 최대주주는 조문수 대표이사이며 지분율은 약 19.63%이다. 그리고 계열사인 한국신소재, 그리고 조문수 대표이사의 아들인 조연호가 각각 0.59%와 2.37%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공시에 따르면 조문수 대표의 아들인 조연호는 94년생이다. 이제 겨우 스무 살을 넘긴 셈이다. 아직 3세 경영을 거론하기에 다소 어린 나이일지 모른다. 하지만 조문수 대표의 조연호로의 3세 경영 승계 준비는 제법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카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카본의 계열사인 한국신소재부터 살펴보자.

사실 한국신소재가 형식상 한국카본의 계열사이긴 하지만 정작 한국카본과 지분관계는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즉, 한국카본은 한국신소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13년 말 기준으로 한국신소재의 최대주주는 조연호로 지분율은 70%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연호의 모친이자 조문수 대표의 아내인 이명화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문수 대표의 자녀인 조경은, 조혜진이 각각 5%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신소재는 완벽하게 한국카본 오너 일가가 소유한 개인 회사인 셈이다.

1986년 설립된 한국신소재는 유리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05년 말까지만 해도 한국신소재의 최대주주는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조문수 대표이사였다. 그러다 2006년 말 주주구성이 조연호 55%, 조문수 45%로 변동되었다. 그리고 2012년 말 조연호가 지분의 70%를 보유하는 지금의 지분구조로 변동되게 된다.

한국신소재는 그 사업 특성상 한국카본과 밀접한 사업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카본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신소재 매출에 변화가 감지되었다.

과거 한국신소재는 2009년까지 100억원 수준의 매출에 별다른 이익이나 손실 없는 수준의 손익을 기록해 왔다. 그래서 2009년 말이 24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이익잉여금이 7.8억원에 불과했다. 매출은 대부분 한국카본이나 한국화이바 등 관련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한국신소재는 2010년에도 전년과 유사하게 1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한국카본에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서 약 13억원의 영업외수익을 얻게 된다. 덕분에 한국신소재는 2010년 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그 중 5억원의 배당으로 지출했다. 배당금은 당시 지분율에 따라 조연호와 조문수에게 각각 55:45 비율로 지급되었다.

이후 한국신소재의 매출은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2011년 110억원에서 2012년 12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193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12년 한국신소재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지만 2013년에는 약 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당시 한국신소재는 193억원의 매출 중 141억원을 한국화이바에, 그리고 30억원의 매출을 한국카본과의 거래를 통해 달성하였다.

조문수 대표이사의 아들 조연호는 2010년 한국신소재가 한국카본에 유형자산을 매각하며 얻게 된 매각차익 덕분에 약 2억 7천 5백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게 되었으며, 한국신소재는 2013년 계열사 매출 증대 등으로 인해 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고스란히 조연호의 한국카본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연결되었다.

한국카본은 2011년 10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전환사채와 400억원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2012년 9월 조문수 대표이사와 한국신소재, 그리고 조연호 등은 신주인수권을 매입하게 된다. 당시 400억원 중 조문수 대표이사가 20억원, 한국신소재와 조연호가 각각 70억원을, 그리고 조경은과 조혜진 등이 각각 5억원을 매입하게 된다.

그리고 2012년 12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100억원의 전환사채와 매각하고 남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4,349원에 전환했으며, 그로부터 1년 뒤인 2013년 10월 8천원에 전량 매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리고 2014년 조연호와 한국신소재 등은 신주인수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한국카본에 대한 지분을 늘려나갔다. 2014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조연호 등은 모든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조연호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7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신소재는 계열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축적해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갓 스물을 넘긴 조연호는 과연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었을까?

조연호는 천재?

한국카본은 그 사업 특성상 연구 개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카본은 1991년 한국카본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 우수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한 석학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13년 말 기준으로 한국카본은 무형자산 가운데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된 금액만 약 95억원

에 달한다.(취득원가 기준) 그리고 2013년에 연구개발비용으로 회계처리 된 비용만 약 19억원에 달한다. 그에 걸맞게 한국카본은 여러 특허와 산업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소재 전문기업으로서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가 지금의 한국카본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카본 그룹의 3세인 조연호 또한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조연호는 한국카본 사업과 관련해 2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는 탄소섬유 시트의 제조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일방향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직물을 이용한 복합재료 및 그를 이용한 동박적층판 특허이다.

우선 탄소섬유 시트의 제조방법 특허는 일방향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를 이용하여 제조된 경량 및 고강도의 탄소 섬유 시트 및 그 제조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2009년 4월 출원했으며 2010년 9월 등록되었다. 다음으로 일방향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직물을 이용한 복합재료 및 그를 이용한 동박적층판 특허는 얇은 두께와 낮은 열팽창계수 그리고 높은 열 방출 특성을 가지는 복합재료의 제조 방법 등에 대한 특허로서 2012년 2월 출원되어 2012년 9월 등록되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연호는 94년생으로 2009년과 2012년에 관련 특허의 출원에 나섰다. 2009년에 출원한 특허는 조연호가 만 14살 때이며, 2012년 9월에 출원한 특허는 그가 만 17살 때 출원한 것이 된다. 조연호는 중고등학교 시절 한국카본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탄소섬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한국카본 그룹 3세의 떡잎이 역시 남다른 것일까?

조연호의 천재적인 재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연호는 5개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PRIMUS 상표권이 2개이고, BLACKMONDI가 3개로 총 5개이다. 조연호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5개의 상표를 출원해 보유하고 있다. 해당 상표들은 한국카본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로 추정된다. 2009년과 2010년이면 조연호가 여전히 중학생이었을 시절이다.

10대에 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취득하고 상표권을 출원한 조연호의 재능은 가히 천재적이다.

잇나가는 장남

조문수 대표이사가 아버지인 조용준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1년 조용준 전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자지간의 경영권 분쟁 원인이 "장남이 다른 돈벌이가 있으면 자꾸 투기, 돈놀이를 하려고 해서"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카본 그룹 창업주인 조용준 전 회장은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이 무색할 만큼 연구와 기술 개발에 전념해 지금의 한국카본을 일군 입

지전적인 인물이다. 그 만큼 조용준 전 회장은 기술력이 사활을 걸고 한국카본 그룹이 복합재료 분야의 일인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용준 전 회장의 장남이었던 조문수 대표이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실제로 조문수 대표이사는 경영권 분쟁 시기를 전후해서 한국카본 사업 분야와는 조금 다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11년에 한국카본은 당시 코스닥 상장회사였던 동양텔레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카본은 2011년 1월 동양텔레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25억원을 투자했으며, 이후 장내매수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약 3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그런데 한국카본이 동양텔레콤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인 2010년 말 기준으로 동양텔레콤은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2010년에만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동양텔레콤의 외부감사인 역시 동양텔레콤이 특정 거래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이 과다하고 당기결손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카본은 별다른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부실한 동양텔레콤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 이후 조문수 대표이사의 아내인 이명화 한국카본 부사장과 권기엽 이사는 동양텔레콤 등기임원으로 선임되어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 초 동양텔레콤은 과도한 자본잠식과 연속된 영업손실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동양텔레콤 외부 감사인은 동양텔레콤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동양텔레콤은 2012년 4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2년 반기에도 감사의견이 거절되면서 상장폐지 되었다.

한국카본 역시 동양텔레콤 상장폐지로 인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했다.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그것도 부실이 누적되어 위험성이 높은 회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한국카본은 1년 반 만에 수십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

한국카본의 외도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2009년 11월 한국카본은 에이치씨네트웍스라는 무역과 국내외 자원개발투자 및 컨설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2009년 말 30억원을 투입해 100% 자회사로 설립한 에이치씨네트웍스에 대한 한국카본의 투자는 2010년 말에는 7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30억원의 대여금과 지급보증까지 제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에이치씨네트웍스는 다시 홍콩에 자회사인 HC Networks HONGKONG Co., Ltd를 설립했으며, HC Networks HONGKONG Co., Ltd는 다시 홍콩에 G.B.I(H.K) INTERNATIONAL Ltd.Co., Ltd라는 자회사를 설립했고, G.B.I(H.K) INTERNATIONAL Ltd.Co., Ltd는 캄보디아에 Horizon Agriculture Development Co. Ltd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무나무 등 조림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다행히도 에이치씨네트웍스는 2011년에 274억원의 매출과 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12년부터 갑자기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캄보디아와 홍콩의 자회사들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었고 급격하게 재무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2013년 말 에이치씨네트웍스의 자본총계는 -57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에이치씨네트웍스 자회사 가운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Horizon Agriculture Development Co. Ltd 역시 2013년 말에 7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었다.

2013년 말 한국카본은 에이치씨네트웍스에 대해 70억원의 투자금 뿐만 아니라 150억원의 대여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에이치씨네트웍스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설정금액 약 105억원으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100억원 이상의 지급보증까지 제공하고 있다.

에이치씨네트웍스의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카본은 에이치씨네트웍스에 대한 투자금이나 대여금, 그리고 담보제공과 대여금 등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딘 격으로 에이치씨네트웍스가 추진중인 캄보디아 천연 고무나무 조림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에이치씨네트웍스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70년간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 고무나무의 경우 식재 후 5~7년이 지난 후부터 고무 채취가 가능해 단기적인 유동 자금 충당을 위해 카사바 작물을 재배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와 주민들간의 토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한국카본이 문제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국토부, 주정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외국의 한 매체는 에이치씨네트웍스 측이 해당 토지를 충분히 개발하고 이용하지 않아 이를 회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회사측이 캄보디아와의 계약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에이치씨네트웍스를 통해 한국카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카본의 본연의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게다가 해외 사업이고, 자원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어 그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카본은 여기에 70억원의 자본금과 150억원의 대여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했다. 뿐만 아

나라 담보제공과 지급 보증으로 위험 수준은 더욱 높아졌다. 에이치씨네트웍스 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 실체에 대한 한국카본 주주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에이치씨네트웍스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등기임원은 조문수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이자 한국카본 부사장인 이명화 부사장, 그리고 한국카본에서 관리이사를 맡고 있는 권기엽 이사 등이다. 해외사업이나 자원개발 전문가 하나 없는 에이치씨네트웍스가 수백억원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은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한국카본은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미래셀바이오의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간 투자금은 20억원이다. 미래셀바이오는 과거 미래생명공학연구소라는 이름이었다, 2012년 동양텔레콤이 상장폐지 되기 직전 동양텔레콤은 미래생명공학연구소의 지분을 취득해 바이오 출기세포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동양텔레콤과 미래생명공학연구소, 그리고 한국카본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양텔레콤이 상장폐지 된 지금 한국카본은 다시 미래생명공학연구소에 직접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야 하며, 변화되는 사업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현명히 극복하면서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한국카본의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에는 선뜻 공감하지 않는다. 한국카본의 창업주 조용준 전 회장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투기나 돈놀이로 보였던 것은 아닐까?